무주군,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15일~10월 15일까지 군민 생명·재산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무주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산사태 예방에 나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상황실은 기상상황과 산사태 위험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운영하며 산사태 초동단계서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8개 반 16명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32개소, 임도 31개소 노선, 사방댐 65개소 등 취약지역 점검 및 사전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들 대책반원들은 산사태 취약지 연락체계 정비 및 점검과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후 예·경보 발령 및 전파, 주민 대피와 피해복구 등을 신속하게 펼치기로 했다.

또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대비를 유도하고 무주119안전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규모 파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이수혁 과장은 "무주군의 경우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무주군 산림녹지과 산사태대책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 유입·정착 지원 탄력

진안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11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년의 정착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도시 청년들을 유입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with 귤벌집 조성사업'을 컨텐츠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라북도 심사 및 컨설팅을 거쳐 공모사업에 참여해 행안부 서면심사, 현지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5월 최종 선정됐다.

전국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진안군은 행정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지에 귀농귀촌 청년쉐어하우스,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향후 건물이 완공되면, 도시청년에게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면서 진안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진안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을 계기로 도시 청년을 유입·정착시켜 지역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인구감소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이 답이다"며 "반드시 청년을 지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진안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6개 영역 모든 부분서 최고 등급 'A' 받아

무주군이 위탁 운영하는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이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며 3년간의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무주장애인복지관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 운영 전반 등 6개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특히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노력 및 관리 우수, 이용인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교 관장은 "무주군 거주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뒀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무주군재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무주군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클로렐라 여름상추 품종선발 실증

진안군은 11일 산간 고원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고온 적응성 여름상추 품종선발을 위한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재배는 고랭지인 진안의 여름 기후에도 재배가 되면서 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고자 추진하며 여름 상추에서 문제가 되는 무름병 및 조기 꽃대 출현으로 인한 상품성 미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로렐라 처리를 통한 상품성 개선을 실증하게 된다.

실증에 들어가는 상추 품종은 바타비아, 오크리프, 버터헤드 등 유럽형 포기상추로 10타입 17품종이다.

군은 17개 품종을 4월 초 정식하여 5월 중순 수확한 후 수확 결과에 따라 녹색과 적색 계통으로 5종 내외로 우수 품종을 선발해 이를 다시 5월 말, 7월 초 2회에 걸쳐 추가 정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진안군의 기후에 잘 맞는 품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상추가격이 높은 여름철에 수량성이 높고 재배관리가 수월한 품종을 선발이 되면 6~8월 딸기 휴작기나 하우스 토경 재배 시 2작기 이상 작부체계로 농가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포기형 상추로 수확 및 선별작업의 노동력을 절감해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군에서는 조직이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클로렐라를 자가배양 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많은 이용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 군민 코로나19 무료검사 독려

장수군이 관내 코로나19 확진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 군민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 장수군은 장수보건의료원, 장수군청광장, 장수시장 등 3개소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의사, 간호사, 행정 등 8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장수보건의료원선별진료소는 9~19시, 장수군청광장 및 장수시장 선별진료소는 9~18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0일까지 총 2,970여명의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군은 상황 안정 시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강화하고 장수시장 등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물 43개소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투입해 방역 활동 및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군민들과 장수군을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오전 기준 장수군에서는 총 25명(장수 20명, 번암 2명, 계북·천천 각 1명, 기타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진안군은 11일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재무과 도움창구에 방문하면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 연장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연장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식품 대기업 출신 전문 경영인 컨설팅 제공

장수군이 중소식품업체 대상으로 '농식품 상생자문단'의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식품 상생자문단' 위원들은 CJ제일제당(주) 부사장, 롯데쇼핑(주)슈퍼사업본부 상품본부장 등 대부분 前 대기업 임원 출신 44명으로 구성돼 관내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관리, 노무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등을 1대 1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군은 현재 장수홍삼, 백화영농조합법인 2개 업체가 前기린미원푸드(주) 대표, 前정은용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의 경영전략, 상품개발, 회계·세무, 재무관리 등을 컨설팅을 받고 있다.

'농식품 상생자문단'의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장수군청 농축산유통과 식품진흥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의 조건 검토 후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에 신청되며 제출신청내용에 따라 자문위원을 배정받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